

메딩골 한국정원

정우조경 이시희

우리가 흔히 떠올리는 옛 한국 정원의 모습은 TV 사극에서 자주 보는 장면들입니다. ‘한국 정원’이라고 하면, 경치 좋은 곳에 자리 잡고 선비들이 풍류를 즐기는 정자나 누각, 또는 풍수와 경관이 뛰어난 깊은 산속의 절간을 떠올리기 쉽습니다. 우리의 옛 정원들은 인공적이지 않으면서도 건축물이 주변의 나무, 돌, 물과 자연스럽게 어우러져, 오늘날까지도 그 아름다움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메딩골 한국정원은 이런 전통적인 정원의 이미지에서 벗어나 있습니다. 어려운 삶을 살아온 조상들의 생활 터전을 ‘민초들의 삶’이라는 주제로 표현한 점이 특히 그렇습니다. 400m 길이의 물길, 연못과 폭포, 그리고 아름다운 바위들은 제가 직접 만들었다고 말하기 부끄럽지만, 매우 자연스럽게 아름답게 조성되었습니다. 하지만 메딩골정원의 매력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이곳은 특정 시대의 정원을 재현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과거와 현재, 미래를 아우르며 한국적인 요소를 기본으로 하면서도 서양적인 요소도 곳곳에 배치해 독특한 조화를 이뤘습니다.

과거에는 정원을 관람용으로 꾸몄다면, 요즘은 사람들이 정원 속에 들어가 자연을 직접 즐기는 방식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변하듯 조경과 건축도 시대에 따라 변화해갑니다. 한 시대를 대표하던 것이 시간이 지나면 새로운 것들에 자리를 내어주며, 이렇게 발전은 이어집니다. 저는 메딩골정원이 그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메딩골 한국정원은 여러 분야의 사람들이 의지와 열정, 그리고 사명감을 담아 함께 만들어낸 작품입니다. 이 정원에는 25톤 트럭 300대 분량이 넘는 돌이 사용되었습니다. 돌을 놓을 장소를 디자인하며 설레었던 마음, 그리고 사람의 힘으로는 옮기기 어려운 돌들을 이동시키며 흘린 많은 이들의 피와 땀, 이 모든 것이 메딩골 한국정원에 고스란히 녹아 있습니다.

이 글을 쓰는 어느 더운 여름날, 저는 자연과 어우러진 메딩골정원에서 돌과 나무, 그리고 정자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메딩골 한국정원은 기존 정원에 대한 고정관념을 깨면서 새로운 아름다움을 만들어낸 공간이기에, 한 시대를 대표하는 정원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한국정원의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며, 시간이 흘러도 메딩골정원의 아름다움은 계속될 것이라 믿습니다.